

보도시점 2026. 8. 13.(목) 13:30 (2026. 8. 14.(금) 조간)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 성장 지원 훈련 컨설팅 우수사례 5건 선정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병훈, 이하 ‘공단’)은 13일 서울 보코 명동 그랜드홀(서울 중구)에서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직원 교육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상황을 진단하고 기업에 맞춤형 훈련을 처방해주는 HRD종합서비스

공단은 2023년부터 중소기업의 상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훈련을 처방하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이하,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330명의 주치의를 통해 7월까지 1만 2천여 개 기업에 맞춤형 훈련 컨설팅을 제공했다.

능력개발전담주치이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훈련과정개발과 성과분석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부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경영개선 솔루션도 제안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중소기업과 공단이 팀을 이루어 참여했으며,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5개 팀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사례1 (주)태화기업은 CEO의 인력양성 의지가 높으면서 조직원의 탄탄한 결속력이 있는 반면, 급속한 생산환경 변화에 따른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시급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단 경남지사 주치이는 CEO 및 기업 관계자와 함께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고 생산효율을 높이기 위한 훈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생산현장의 단계별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공단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다각적으로 연결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내부 체질을 바꾸고, 학습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었다. 훈련을 통해 기업 내 직원들의 숙련도와 문제해결 역량을 향상시켰으며, 현장개선 활동을 통해 1인당 생산량을 35.9에서 50까지 증가시켰다.

또한, 기업 내 AI(인공지능)중심 학습문화를 정착시키고, 중·장기 AI훈련 로드맵 수립을 통해 직원들의 AI 내재화 및 AX(인공지능전환)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성장체계 기반도 마련했다.

사례2 (주)프로발은 스마트공장 구축 및 R&D 투자에 집중했으나, 투자 대비 생산성 효과가 미비하고, 신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기업은 공단 경기서부지사 주치의를 통해 능력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인적 자원 투자를 통한 내부 인재 육성을 진행하였으며, 직원들의 AI역량 확보를 통해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직원들의 업무 수행력을 향상하여 기업 내부 수익성 개선에 영향을 주었으며, AI 업무자동화 업무 효율을 통해 근무체계 혁신에 기반한 주 4.5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병훈 이사장은 “이번 경진대회의 다양한 우수사례를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능력개발전담주치의와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공단은 한국형 인적자원개발(K-HRD) 선도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산업현장에 필요한 능력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능력개발전담주치의 기업 맞춤 컨설팅은 HRD4U(www.hrd4u.or.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 붙임 1. 2026년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요
2. 2026년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 개요
3.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참여기업 우수사례(설명)

※ [참고] 우수사례 선정 기업(5개)

연번	컨설팅(훈련) 대상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기관(공단 지부·지사)
1	(주)이화테크윈	부산남부지사
2	코아시아세미	경인지역본부
3	(주)태화기업	경남지사
4	(주)프로발	경기서부지사
5	(주)합동전자산업	서울남부지사

* 컨설팅 대상 기업명 가나다 순, (순위와 무관)

담당 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기획부	책임자	부장	안용민 (052-714-8211)
		담당자	과장	권현정 (052-714-8213)



- **(일자 및 장소)** '26. 8. 13.(목), 서울 보코 명동 그랜드홀
- **(참석대상)** 참여기업 및 공단 소속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
- **(진행방식)** 1차 서류심사를 통해 2차 발표심사에 진출한 5개 팀을 대상으로 발표심사 후 순위별 상장 및 포상금 수여 등 시상식 개최
- **(포상규모)** 이사장상 포상 및 상금 지급

순위	규모	포상내용(공단 및 기업 개별 수여)
대상	1개 팀 (공단1+기업1)	각 이사장상, 온누리상품권 50만원
최우수	1개 팀 (공단1+기업1)	각 이사장상, 온누리상품권 40만원
우수	1개 팀 (공단1+기업1)	각 이사장상, 온누리상품권 30만원
장려	2개 팀 (공단2+기업2)	각 이사장상, 온누리상품권 20만원

○ **행사 식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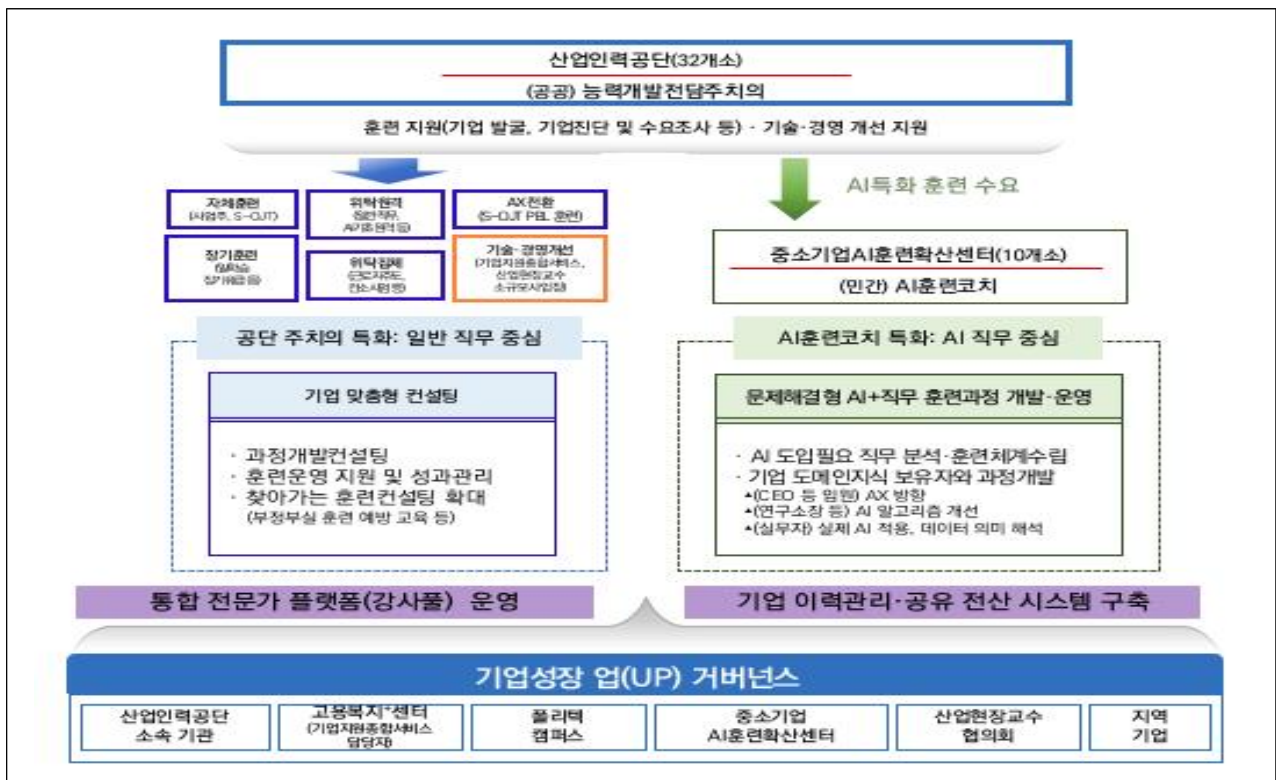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3:30	• 참석자 등록 및 대회 안내	사회자
13:30~13:40 (10분)	• 개회사 및 진행순서 안내	CEO, 사회자
13:40~15:00 (80분)	• 발표심사 [팀별 15분(발표 10분 / 질의응답 5분)]	5개 팀
15:00~15:10 (10분)	• 휴식시간	-
15:10~15:50 (40분)	• AI훈련 사례 공유	AI확산센터
15:50~16:00 (10분)	• 심사 총평	심사위원장
16:00~16:20 (20분)	• 5개 팀 순위별 시상	-
16:20~16:30 (10분)	• 기념 촬영 및 경진대회 종료	-

※ 행사 진행 상황에 따라 순서 및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란?

- 직업능력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에 필요한 훈련 상담부터 기업진단, 훈련과정개발, 기업의 훈련역량을 고도화하는 능력개발클리닉까지 능력개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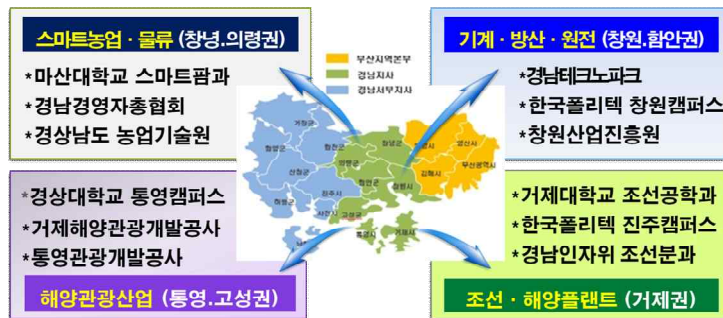


구분	세부내용
기업 수요 발굴 (지역현황 파악 등)	■ 기업 맞춤 직업능력개발훈련 상담 ■ 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이력에 따라 맞춤 자료 제공
기업HRD이음컨설팅	■ 기업 현황 및 훈련수요를 수집·분석(진단)하여 적합한 훈련사업과 훈련과정을 매칭
훈련과정개발컨설팅	■ 기업 훈련수요를 파악하여 훈련추천AI를 통한 맞춤형 과정개발 지원 (사업주 자체훈련, S-OJT 등)
훈련성과 분석	■ 컨설팅을 통해 개발된 훈련과정의 만족도 등을 분석하여 해당 과정의 보완 및 타 훈련 추천 등 피드백 제공
능력개발클리닉	■ 기업 내 직업능력개발훈련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담주치의를 지정하여 기업 HRD역량개발 지원 등 밀착 관리(최대 3년)

[사례1] (공단) 경남지사 - (기업) ㈜태화기업

공단 경남지사는 스마트농업·물류(창녕·의령권), 기계·방산·원전(창원·함안권), 해양관광산업(통영·고성권), 조선·해양플랜트(거제권)를 중심으로 권역별 산업특성을 분석하고 유관기관 협진체계를 통해, 중소기업 맞춤형 직업훈련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 경남지사에서 산업특성 분석·유관기관 협진체계 구축 현황



‘G-BOOST 365(기업의 성장을 365일 지원·가속)’라는 경남형 주치의 운영체계를 운영하고 지역 내 중소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성장을 설계하는 경남형 HRD 성장 플랫폼을 구축하여, CEO의 인식 전환과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문화를 통해 지속적인 훈련을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태화기업은 CEO의 인력양성의지가 높으면서 조직원의 탄탄한 결속력이 있는 반면, 급속한 생산환경 변화에 따른 프로세스 개선이 시급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단 경남지사 주치의는 CEO 및 기업 관계자와 함께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고 생산효율을 높이기 위한 훈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태화기업의 생산현장 문제점 해결을 위해 매칭된 주요 HRD지원사업

코칭체계 부족 능력개발클리닉 · 학습체계 정착 · HRD전담자 양성	납품시간 지연 탄력운영제 · 적재적소 훈련 · 단시간 훈련진행	불량률 지속 사업주(자체) · 현장 실무교육 · 문제점 집중 진단	작업효율 저하 S-OJT · 현장에서 직접코칭 · 토론문화 정착	재고율 상승 PBL AI직무훈련 · 발생원인 파악 · 문제점 즉시 시정
--	---	---	--	--

주치의 지원을 통해 기업 내 교육훈련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기업의 체질을 바꾸고, 학습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갔다. 훈련을 통해 기업 내 숙련도와 문제해결 역량을 향상시켰으며, 현장개선 활동을 통해 1인당 생산량을 Upph 35.9에서 50까지 증가하였다.

또한, 기업 내 AI중심 학습문화를 정착시키고, HRD전문가·현장멘토·현장교사를 보유하였으며, 중·장기 AI훈련 로드맵 수립을 통해 AX기업으로 진입하도록 체계를 구축하여, 기업 내 AI내재화를 할 수 있도록 성장체계를 구축·지원하였다.

(사례2) (공단) 경기서부지사 - (기업) ㈜프로발

공단 경기서부지사는 전년도부터 구축하여 운영한 특화모델 ‘밀당끄수 시즌 2’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기업 성장 파이프라인 형성을 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훈련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서부지사는 주치의가 HR선도기업과 지역 내 산업 협단체, 고용센터, 부천대학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 내 협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정부 AI 정책 기조에 발맞춰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였다.

* 경기서부지사에서 운영한 ‘밀당끄수’ 운영 모델

(전략) 기업훈련 지역활성화계획 수립하여, 특화모델 「밀당끄수 시즌2」 운영

• 특화모델, 밀당끄수밀고 당기고 끄는 기업지원 수레

- 주치의가 HR선도기업, 외부기관과 함께 기업의 성장을 이끌다

* 내·외부 협업을 더욱 강화한 “밀당끄수 시즌2” 운영(25년, 시즌1)

⑩경기서부지사	⑨외부기관	⑪HR선도기업	⑫지역기업
기업 육성 총괄, 파트너십 강화	능력개발사업 홍보 및 협진	HR 실행사례 확산(공유)	점진적 성장, 경쟁력 확보

* ⑨외부기관 : (민)산업 협·단체 (관)지자체, 고용센터 (학)부천대 등

* ⑪HR선도기업 : 능력개발클리닉기업, 탄력운영제 참여기업

* ⑫지역기업 : 일반-성장-확산기업 그룹별 차별화 전략 적용



「 밀당끄수 시즌 2 」

협업생태계 구축하여 기업성장을 지원
주치의 레벨업 # 그룹별 타킷 # 협력

㈜프로발은 경기서부지사 특화모델 ‘밀당끄수’를 통해 HR선도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으로 인적자원 투자와 AI활용을 통한 성공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한 사례이다.

㈜프로발은 스마트공장 구축 및 R&D 투자 등 물적자원 투자를 집중하였으며, 신규 직원 채용을 통한 인력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기술·설비 투자 대비 생산성 향상 효과가 미비하고 신규 직원 채용에 대한 투자 성과에 한계가 있었던 상황이다.

기업은 주치의의를 통해 채용 중심에서 육성 중심으로 인적자원 투자 방식의 전환으로 다양한 능력개발사업 참여영역을 확장시켰으며, 소속 근로자들의 AI 역량을 확보하여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자동화시스템 구축 지원을 했다.

* 능력개발사업 참여를 통한 ㈜프로발의 주요 변화 및 성과

① 구성원 역량 강화	② (자체) 생산업무 자동화 시스템 기반 마련	③ 주4.5일제 시행
직·업무 이해도 및 구조화, 협업, 문제 해결력, AI 활용 역량, 소통, 개선 실행력, 요구사항 체계화 등	- 현재, PEP(Process Event Platform) 추진 중 → PEP로 이벤트와 의사결정 이력 데이터화 → (향후) 수주~납기 워크플로우 예측 및 최적화 시스템 구축	- 역량 강화&AX 진행하면서 비효율성과 낭비 제거 ➡ (26.5-) 주4.5일제 시행 (경기도일자리재단 사업 연계)

해당 기업은 AI 업무자동화를 기반으로 업무 효율을 통한 근무체계 혁신을 통한 주4.5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내부 직원들의 업무 수행력이 37.5% 향상되어 기업 내부 수익성 개선에 영향을 주었으며, 훈련과 AI 활용을 양대 축으로 조직문화 개선과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체계를 마련하였다.